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창작 커뮤니티

Case Study 3: 부드러운 경계

건축과 도시 설계 과정에 사람들의 참여를 기획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실천적 제안



서울 THE 5TH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2025

1. 이 프로젝트는 무엇인가?

창작 커뮤니티

이 프로젝트는 2025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창작 커뮤니티 (Creative Communities)' 프로그램의 일부로 시작되었다. 서울을 살아가는 시민과 지역 커뮤니티가 비엔날레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도였다. 서울의 건물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남기는지, 그리고 그 공간들이 조금 더 즐겁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을지를 함께 탐색하는 자리였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새로운 창작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데에 그치지 않았다. 비엔날레를 전문가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참여하는 대화의 장으로 확장하는 일이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총 83건의 제안이 접수되었고, 148명의 창작자와 1,214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10개 팀이 선정되어, 약 7개월 동안 9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 1,000명 이상의 시민이 직접 참여했다.

각 프로젝트는 2D 아트워크(8.25m × 4.8m)를 제작해 서울 도심 공원에 설치된 '휴머니이즈 월(Humanise Wall)'에 전시되었다. 또한 도시건축전시관 인근 전시와 연계되었으며, 서울시청에서 열린 글로벌 컨퍼런스에서도 함께 소개되었다.

경계가 만들어지는 순간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도시는 계속해서 커지고 변하면서, 서로 다른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다. 새로 지어진 주거지와 오래된 풍경, 재개발 지역과 기존의 동네, 서로 다른 커뮤니티가 같은 장소를 공유하게 되는 순간들이다. 이런 지점은 흔히 '도시의 경계'로 이야기되기도 한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 서부 외곽의 한 지역, 김포시 고촌에서 시작되었다. 최근에 조성된 아파트 단지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농경지가 바로 맞닿아 있는 곳이다. 전혀 다른 삶의 리듬으로 형성된 두 개의 풍경이 같은 장소를 공유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교차하지 않는다.



경계에서의 일상

이러한 경계에서는 사람들의 일상이 서로 겹치지 않는다. 같은 건물이나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도 동선과 생활 시간은 거의 만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실제로 서로를 마주칠 기회는 많지 않다. 겉으로는 함께 사용하는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용 방식은 다르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향에서 들어오고 머무는 시간도 다르다. 대부분은 잠시 스쳐 지나간다. 익숙한 얼굴이지만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때문이라기보다, 일상의 방식 자체가 만남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 그리고 이런 경계는 공간을 나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준다.

도시에서의 경계

이러한 상황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도시가 빠르게 확장되면서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와 기존 동네, 오래된 주거지가 서로 맞닿는 일이 흔해졌다. 현재 아파트는 전체 주택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그 대부분이 지난 30년 사이에 지어졌다.

이 프로젝트는 아파트 단지와 기존 주거지 사이에서 나타나는 경계를 다루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경제적 수준이 다른 지역 사이, 오래 거주한 주민과 새로 유입된 사람들 사이, 문화나 계층이 다른 집단 사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진다. 중요한 것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같은 장소에 살고 있어도 서로를 이어주는 접점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경계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상태에 가깝다.

같은 곳에 살고 있어도 서로를
이어주는 접점이 충분하지 않을
때 만들어지는 상태다.”

왜 중요한가

이 문제는 공간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농지와 아파트 사이의 경계는 물리적인 구분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의 삶이 나뉘는 이유는 그보다 복잡하다. 같은 공간을 공유해도 사람들은 쉽게 만나지 않는다. 동선과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벤치나 보행로 같은 공공 공간이 있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 공간을 사용하고, 대부분은 잠시 스쳐 지나간다. 공간이 있다고 해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드러운 경계’(Soft Edges)는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단순히 공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마주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에 초점을 둔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어린이와 고령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서로의 동네를 함께 관찰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세대의 경험과 지식이 오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같은 공간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2. 누가 참여했는가?

참여 구조

이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미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일상에서는 거의 마주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주민과 새로 지어진 아파트로 이주해 온 가족들은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일상적인 접점은 많지 않았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도 서로의 삶은 거의 겹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는 사전에 관계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전체 과정은 네 가지 역할을 중심으로 조직되었고, 각 역할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참여를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특정한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하기보다는 여러 관점이 함께 드러날 수 있었다.

1. 참여자

이 지역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본이 되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주민들은 지역의 변화와 땅이 바뀌는 과정을 직접 겪어온 사람들이다. 반면 최근 아파트에 살기 시작한 아이들은 같은 장소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하나의 참여자로 다뤄졌다. 아이들의 그림과 생각은 농사 경험이나 오랜 기억과 동등한 수준에서 다뤄졌다.

2. 연결자

마을 리더와 지역 커뮤니티 관계자들은 참여를 이어주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프로젝트를 주민들에게 소개하고, 낯설 수 있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고령의 주민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이 중요했다.



3. 진행자

진행자는 워크숍의 방식과 도구를 설계했다. 서로 다른 세대가 편하게 함께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드는 것이 주요 역할이었다. 특정한 결론을 유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관찰할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하는 데에 집중했다.

4. 해석자

워크숍에서 나온 경험과 결과를 공간과 시각적 결과물로 정리하는 역할이다. 참여자들의 대화, 그림, 행동을 기록하고, 이를 색, 형태, 장면 등으로 풀어내어 하나의 시각적인 결과로 이어지도록 했다.

5. 구성 방식

첫 번째 워크숍에는 약 20명이 참여했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소규모로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이후에는 참여 인원을 줄여 보다 집중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참여 인원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다. 아이들이 친구를 데려오면서 인원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작은 규모를 유지했다. 이를 통해 각자의 의견을 쉽게 나누고 서로의 생각에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이 생겼다.



부드러운 경계 프로젝트 팀
관련 영상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두 차례의 실내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며, 각 세션은 약 3시간 동안 이어졌다. 처음에는 약 20명이 참여했고, 이후에는 참여 인원을 줄여 보다 집중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워크숍은 세 명의 진행자가 함께 운영했다.

상호작용이 만들어지는 방식

워크숍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지만 일상에서는 거의 마주치지 않던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팀은 앉을 수 있는 자리이자 공간을 구성하는 장치로 작동하는 모듈형 가구를 직접 제작했다. 이 가구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역할도 했다.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가구는 밝은 색으로 만들고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게 했다. 참여자들은 자리를 옮기고 낯선 사람 옆에 앉으면서 자연스럽게 섞였다.

각 세션은 어색함을 풀어주는 간단한 게임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을 이어준 것은 말보다 공간의 배치였다. 참여자들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기보다 안쪽을 향해 둘러앉았고, 같은 팀에 속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옆에 앉았다.

익숙한 것에서 시작하기

워크숍은 모든 참여자가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익숙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바로 각자의 집이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거실과 창문을 중심으로 내부 공간을 구성해보는 작업을 했다. 창틀 형태의 템플릿과 스티커, 패턴, 색지 등이 제공되었고, 이를 활용해 공간을 채워 나갔다. 이처럼 명확한 템플릿과 간단한 도구가 주어지면서, 나이와 드로잉 경험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집 안에서 보이는 사물, 색, 식물, 빛 등을 바탕으로 각자의 일상과 기억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창들을 나란히 놓고 보니 하나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내부의 삶은 각 집마다 매우 다양했지만, 창문 밖에서 보이는 아파트의 모습은 거의 비슷했다.

이후 참여자들은 창문과 발코니, 건물 입면까지 같은 방식으로 확장해보며 개인의 삶이 외부 공간에도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지를 함께 이야기했다.



범위 확장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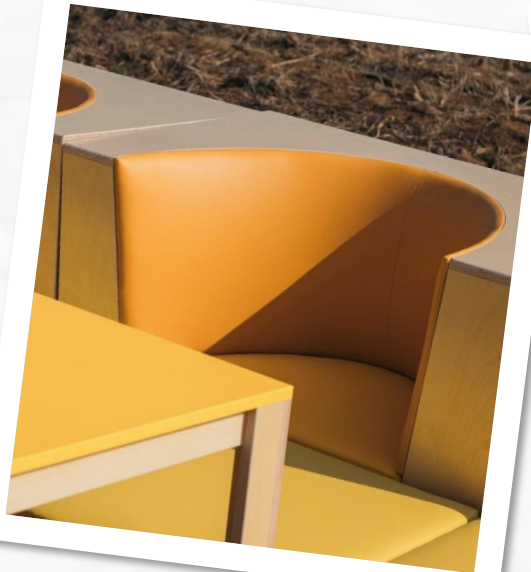
이후 워크숍은 집에서 시작된 논의를 점차 동네로 넓혀갔다. 도시 농업이 하나의 공통된 주제로 제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은 동네 공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농사는 고령의 주민들에게는 익숙한 일이었고, 아이들에게는 새롭고 흥미로운 주제였다.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연령대가 섞인 팀을 이루어 큰 동네 지도를 중심으로 함께 작업했다. 지도 위에 놓인 작은 화분을 옮겨가며 무엇이 어디에 있으면 좋을지,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또 일상에서 어떤 공간이 부족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화분을 옮기는 과정에서 고령의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언제 씨를 심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에 대한 경험을 나눴다.

지도 위에서는 아파트, 상가, 학원, 병원 같은 익숙한 장소들과 각자의 이동 경로를 하나씩 표시해 나갔다. 이후 대화는 점차 동네 공간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어졌다.

“1층은 생기 있고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치 삼겹살집 앞에 귀여운 돼지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것처럼요.”

이러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참여자들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동네 공간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다. 특히 상가와 같은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가구나 식물, 휴식 공간이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상상이 이어졌다. 논의는 개별 건물을 넘어 동네 전체의 일상 환경으로 확장되었다.



결과를 시각화하기

워크숍에서는 창 구성, 입면에 대한 아이디어, 주석이 더해진 지도, 그리고 가구가 사람들의 행동과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관찰까지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이 만들어졌다.

프로젝트 팀은 이러한 관찰과 기록을 하나의 시각적·공간적 언어로 정리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과 공통된 질문, 그리고 세대 간에 겹쳐지는 지점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이미지로 통합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기간 동안 '휴머니즈 월(Humanise Wall)'에 가로 8.25m, 세로 4.8m 규모로 전시되었다.

이 작업은 수십만 명의 관람객에게 동네의 건물과 공간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연결과 더 부드러운 공존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새롭게 상상해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었다.

“동네의 건물과 공간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연결과 더 부드러운 공존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새롭게 상상해보는 하나의 방식이 제시되었다.”



4.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공간 인식

워크숍 이전에는 아이들과 고령의 주민들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도 서로를 크게 인식하지 못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참여자들은 같은 공간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경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이 곧바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대신 참여자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공간을 바라보는 방식에 변화가 생겼고, 공간에 대한 인식에도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다.

일상

참여자들이 제안한 변화는 대부분 큰 규모의 개입이 아니었다. 앉을 수 있는 자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작은 요소, 잠시 멈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지점과 같은 작고 실용적인 것들이었다. 이는 동네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추상적인 의견이라기보다,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반영한 제안이었다.

워크숍에서 사용된 가구의 배치 자체도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역할을 했다. 마찬가지로 화분과 도시 농업 요소는 반복적인 만남과 교류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작은 공간적 변화들이 쌓이면서 일상의 동네 환경이 점진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세대 차이

아이들과 고령의 주민들 사이의 차이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이들은 빠르고 직관적으로 반응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도했고, 고령의 주민들은 더 천천히 접근하며 계절과 재료,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친 변화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견을 더했다.

서로 다른 관점은 충돌하기보다 보완적으로 작용했다. 아이들은 호기심과 실험을 이끌었고, 고령의 주민들은 맥락과 기억을 더했다. 세대 간의 차이가 동네를 이해하고 다시 생각해보는 데에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된 순간이었다.



“참여자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공간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었고, 공간에 대한 인식에도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다.”

농지와 주거지

워크숍에서 지도 위의 요소를 옮기고 비교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농지와 주거지 사이의 경계가 단단하게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더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화분과 도시 농업 요소를 배치하는 과정은 사람들이 함께 돌보고 교류할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냈다. 워크숍 가구 역시 이러한 경계 부근에 놓이면서 아파트 단지와 농경지 사이의 공간을 자연스럽게 만남의 장소로 바꾸었다.

이처럼 작은 개입만으로도 경계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다. 농지와 주거지가 물리적으로 나뉘어 있더라도, 식물이나 앉을 자리, 작은 모임 공간이 더해지면 그 경계는 단절된 선이 아니라 사람들이 머물고 관계를 만드는 '부드러운 경계'로 작동할 수 있다.



5. 비용은 어느 정도였는가?

이 프로젝트는 2025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크리에이티브 커뮤니티(Creative Communities)'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된 9개의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각 프로젝트에는 약 2,000만 원(약 13,000달러)의 공공 예산이 지원되었다.

이 예산은 워크숍의 기획과 운영, 워크숍 가구 제작, 그리고 과정에서 생성된 다양한 자료의 기록과 정리에 사용되었다. 또한 워크숍에서 만들어진 결과를 하나의 주요 시각 작품으로 정리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활용되었다.

그 결과, 이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남겼다:

- 1) 같은 동네에 살고 있지만 일상에서는 거의 마주치지 않던 서로 다른 세대의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워크숍 과정
- 2) 드로잉, 지도 작업, 공간 배치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이 일상의 경험이 동네 공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한 작업 방식
- 3) 이러한 참여 과정을 하나의 시각적 결과로 정리해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기간 동안 54일간 전시로 이어진 결과물.



6. 무엇을 배웠는가?

‘부드러운 경계(Soft Edges)’는 동네의 관계를 바꾸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 기관, 커뮤니티 조직, 참여형 디자인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1. 사람들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단순히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은다고 해서 큰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참여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호기심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 프로젝트에서 워크숍은 개인의 경험에서 출발해 동네에 대한 공동의 이해로 이어지도록 단계적으로 구성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참여자들은 점차 편안해졌고, 서로의 기억과 관찰을 나누기 시작했다. 일부 참여자들은 도시 외곽에서 도심까지 함께 이동해 휴머나이즈월과 전시를 직접 보기도 했다. 이 과정은 잘 설계된 참여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2. 세대 차이는 문제가 아니라 자산이다

아이들과 고령의 주민들은 동네를 이해하는 방식이 달랐다. 아이들은 빠르고 직관적으로 반응하며 아이디어를 실험했고, 고령의 주민들은 농사 경험과 계절의 변화,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친 풍경의 변화를

바탕으로 접근했다. 이러한 차이는 충돌하기보다 서로를 보완했다. 아이들은 호기심과 실험을 이끌었고, 고령의 주민들은 맥락과 기억을 더했다. 세대 간의 다양성은 종종 문제로 여겨지지만, 오히려 동네를 이해하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3. 작은 장치가 관계를 바꾼다

항상 큰 설계 개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워크숍에서는 작은 공간적 장치들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모듈형 가구는 사람들을 가까이 모이게 하고, 같은 테이블을 중심으로 대화와 협업을 유도했다. 또한 화분과 간단한 도구와 요소는 사람들이 모이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도 자연스럽게 작동하며 사회적 교류를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4. 디자이너는 조건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 프로젝트는 창의적인 참여가 디자이너의 지속적인 개입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활동의 구조가 마련되자, 참여자들 사이의 대화와 관계는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팀은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이 드러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익숙했던 동네의 경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작은 공간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경계’** 개념의 핵심이다.



부드러운 경계 프로젝트 팀
관련 영상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창작 커뮤니티(Creative Communities)는 서울특별시가 주최한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주제전의 주요 프로젝트로, 시민과 창작자들이 함께 도시와 건축을 탐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본 사례연구는 창작 커뮤니티의 기획과 실행 과정, 참여 경험 및 주요 성과를 기록하고 이를 국내외에 공유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연구 및 집필은 프로젝트 참여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헤더윅 스튜디오(Heatherwick Studio)와 장혜림이 수행하였습니다.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서울
THE 5TH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2025

HUMANISE

Heatherwick studio